

# 외국인 계절근로제 한시적 상시 운영

### 전남도 건의 법무부·농식품부 수용 전국 지자체 간담회 통해 개선 대책 내놓은 코로나 인력난 숨통 트일 듯

전남도가 농촌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건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안을 법무부와 농식품부가 전면 수용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11월 정부는 전남도의 제도개선 건의안을 토대로 전국 112개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제도 운영 현장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를 통해 농어업 분야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도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가 미흡한 원인을 찾아 유인책을 추가 발급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한시적 계절근로제도 상시화 ▲농가당 고용 허용 인원 확대 ▲근로 적용 작물 수 제한 폐지 ▲1주일 단위 단기고용 허용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 운영 ▲유학생 등 국내 거주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 범위 확대 ▲성실근로자 재입국 보장 등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현행 제도가 소규모 영세농가가 많은 농촌 현장에 부합하지 않아 도입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촘촘한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내년 봄철 농번기를 대비, 각 사군 재배 품목별 인력 수요를 조사해 이를 기반으로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수급전략은 ▲사군 농촌인력증가센터 건 농작업반 연계 운영 강화 ▲전남도 동남아시아사무소 통해

계절근로 MOU 체결 가능 도시 발굴 및 인력 선발 지원 ▲한시적 계절근로 인력풀 확보를 통한 고용 확대 ▲군부대 대민 지원과 대학생 농촌봉사 확대 등이다.

이밖에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계절근로제도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해 시·군의 업무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11월 말 기준 도내 7개 시·군에 60명의 한시적 계절근로자가 근로중이다.

손명도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전남도가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 정부가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개선된 제도를 시·군에 안내해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지원하고, 농촌 인력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도·시·군·농협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년 봄철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코로나 선별진료소 방문 격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0일 코로나19 대응 지역사회 확산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해 해남군청 선별진료소를 방문,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 전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정부포상 휩쓸어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에 농식품부장관상 2개 수상

전남도가 농식품부의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정부포상에서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각 1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2개 등 4개 상을 휩쓸어 전국 제1 농촌융복합산업 선도지역임을 입증했다.

여수 남주현 거문도해풍속썩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대통령 표창, 송경환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이 국무총리 표창 영예를 안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여수 한해경 농업회사법인 향유미가(주) 대표와 해남군 박선희 팀장이 각각 수상했다. 남 대표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국비 포함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친환경 썩영 농작물 배양, 제조·가공시설을 구축해 썩떡, 썩분말 등 가공식품 9종을 개발했다. 힐링 체험장, 판매장 등도 운영해 농촌융복합산업 성공모델로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 센터장은 신규 인증경영체 발굴, 역량강화 교육, 신제품 개발, 유통 촉진·수출 지원 등을 통해 경영체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 기여했다. 지역 향토산업 자문위원과 순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을 역임하면서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앞서 지난 11월에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진대회에서 영광 이영순 아름담계 그린 배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에서 정부포상을 휩쓸는 것은 전남도가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을 집중 육성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올해 개소당 30억원을 지원하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공모사업의 전국 사업량 4개소 중 2개소를 유치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대면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수입이 줄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사업을 추진했다. 비식용 인 농촌체험관광 상품을 전국 최초로 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jmall.kr)'에 입점시키는 등 차별화한 정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도는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2034개소 중 17%인 350개소를 차지,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전국을 선도하는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바이오산업·MICE 연계 전남관광 융합전략 필요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지난 13일 목포 신안 비치호텔에서 '전남 휴양형 MICE 산업 활성화 포럼'을 공동주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남관광재단이 '전남 휴양형 MICE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조덕현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협력관(전 MICE 실장)이 '전남 MICE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주제로 기조 발제했다. 박준영 김대중컨벤션센터 경영기획실장과 이창재 여수세계박람회재단 기획정책팀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광주와 전남의 초광역 MICE 협업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메타버스 세션이 진행돼 이프랜드(ifland) 가상 회의장에서 전문기획업체가 전남 휴양형 MICE 사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윤



정 ㈜글리덕 대표는 전남의 바이오산업과 MICE를 연계해 해당 분야의 투자진흥은 물론 웰니스 관광을 활성화하는 융합전략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지역 대학생들이 참석해 참신

한 전남관광 마케팅 방안을 발표했으며, 함평 마한 고분군과 보성 녹차밭을 가상세계인 제페토(ZEPETO)에서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관광 콘텐츠가 눈길을 끌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2023년 전국체전·전남방문의 해 연계 시너지 극대화

### 전남도 전문가 그룹 심포지엄 개최·폐회식, 홍보 등 방안 제시

전남도가 2023년 목포시 등 22개 시·군에서 개최하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남도는 지난 17일 도청 왕인실에서 전국체전 개최·폐회식 분야, 경기 운영 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시·군, 전남체육회, 전남장애인체육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체전 성공개최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전문가 그룹은 지난 4월 전국 공모를 통해 개폐회식, 경기 운영, 문화제전, 대회 홍보 등 4개 분야에서 전국규모 또는 국내외 체육대회 및 문화예술·축제행사의 기획·연출·홍보 유경험자 13명을 위촉해 구성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분야별 운영방안 및 추진 전략'을 주제로 '전국체전과 전남 방문의 해'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개·폐회식 분야 주제발표로 나선 장진만 오산대 교수는 기존 전국체전과 차별화해 대한민국 모두가 공감할 스토리를 구성하되, 전세계 이슈인 '환경-탄소없는 건강한 미래, 블루 이코노미 성공 정착을 앞당기는 청정전남'을 부각할 것을 제안했

다. 문화제전 분야 이재형 동아방송예술대 교수는 문화예술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다양한 문화 예술행사를 동시 개최해 '즐기고 누리는 축제'를 치르도록 '재미있는 전국체전', '대중문화 예술의 관광 전남'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회 홍보 분야 박병호 카이스트 교수는 체전 개최 1년 전 체육계 관계자를, 6개월 전 일반국민을, 1개월 전 관광객을, 경기 종료 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각각 홍보하는 등 시점별 홍보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2023년 10월 펼쳐질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주 개최지인 목포시 등 전남 22개 시·군, 76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생명농업대학 내년도 신입생 40명 모집

### 내년 2월 18일까지 원서 접수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전남생명농업대학이 신입생 모집에 들어갔다.

선발인원은 총 40명. 디지털농업과 친환경농업과정에서 20명씩 뽑는다. 입학원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전남농업기술원(농업교육과)에서 교부하고 있으며, 내년 2월 1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www.jares.go.kr),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 및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전남생명농업대학은 1년 과정이다. 연 30만원의 자부담이 있다.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론과 현장 교육을 병행한다. 디지털농업 과정은 미래농

업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농업 기반 스마트 팜, 수직형(공장형)농장, 인공지능(AI) 농업적 활용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친환경농업 과정은 친환경 경 배·채소 재배, 유기농 방제기술, 친환경농산물 가공 등을 교육한다. 지난 2005년 운영에 들어간 전남생명농업대학은 올해까지 졸업생 1019명을 배출했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미래 디지털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과정"이라며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안전먹거리 생산과 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미래농업 신기술 위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